

## 꽃자왈 속 동백나무숲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의 숲 동백동산은 오래도록 이어진 생태계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다. 자연에 대해 배우는 생태학습장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힐링의 공간으로 동백동산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함선로**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97 ~ 조천읍 선흘리 3383-2(약 3.6km)

**동백로**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290 ~ 구좌읍 덕천리 530(약 5.3km)

**함와로**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4151 ~ 조천읍 와산리 966-3(약 6km)

**함대로**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097 ~ 조천읍 선흘리 3383-2(약 3.6km)

**곶은달길**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553-1 ~ 조천읍 대흘리 119-1(약 0.5km)

## 함선로/동백로 | 선흘리 동백동산



동백동산

함선로는 해안가의 함덕리와 중산간의 선흘리를 연결하는 길이다. 선흘리는 숲이 우거진 곳자왈과 곳곳에 솟아있는 오름들, 그리고 땅속의 여러 동굴들을 통해 제주자연의 신비를 잘 보여준다. 선흘리는 1리와 2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선흘1리에는 동백동산이 선흘2리에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이 유명하다. 선흘1리에서 동쪽으로 나 있는 길은 동백동산을 지나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동백로**라 했다.

동백동산은 선흘리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천연림이다. 동백동산은 오래된 동백나무가 많다는 뜻으로 불린 이름인데 동백나무 이외에도 구실잣밤나무, 종가시나무 등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해 여러 희귀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다. 특히 동백동산에 있는 습지는 독특한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람사르협약으로 보호되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생태학습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동백동산이 땅 위에서 자연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다면 땅 속에서는 여러 동굴들이 그 역할을 한다. 선흘리의 땅 속에는 용암이 흘러 만들어진 여러 동굴들이 있다. 그 중 뽕뒤굴의 경우 매우 복잡한 미로형 동굴이다. 동굴 안은 사방으로 가지처럼 뿔려있고, 여러 층으로 되어있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출구를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

선흘리의 동굴들은 4·3사건 당시에 마을 사람들이 토벌대와 무장대를 피해 숨어 있던 곳이기도 하다. 마을을 떠나 동굴에서 잠시 몸을 피하려 했다가 무장대로 오해받아 영영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슬픈 이야기도 전한다.

## 함와로 | 와산리

함와로는 함덕리에서 시작해 와산리에 이르는 길이다.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와산리(臥山里)의 예전 이름은 와호산(臥虎山)이었다고 한다. 마을 가운데에 자리한 당오름의 형세가 호랑이가 누워있는 모습처럼 생겼다고 해서 와호산으로 불렸고, 마을 이름도 이 명칭을 따랐다. 과거에는 이 마을에 성격이 거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들어

간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지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 이름을 누운 산이라는 뜻의 와산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 함대로 / 곱은달길 | 대흘리

함덕리에서 시작한 또 다른 길인 **함대로**는 대흘리까지 이어진다. 대흘리(大屹里)는 예전에 한흘이라 부르던 곳이다. 한흘의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을에 큰 연못이 있어 크다라는 의미의 ‘한’자를 써서 한흘이라고 하다가 한자로 표기하면서 대흘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흘리는 1리와 2리로 나누어져 있다. 대흘1리 인근에는 과거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가는 길목에 마련된 원(院)이 있어서 관리들이 이곳에 여장을 풀고 쉬어갔다고 한다. 대흘2리는 예전에 곱은달이라 불리던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 나 있는 **곱은달길**은 옛 이름인 곱은달을 반영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다른 곳에 비해 달이 떠오르는 것이 늦게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달이 근처에 숨어 있다가 떠오른다는 의미로 제주어로 ‘숨다’라는 뜻의 ‘곱다’라는 말을 써서 ‘곱은달’이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